

해양문화연구 제4호 1998년 12월

##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나타난 해양정서

김 순 갑\*

〈目 次〉

제1장 : 서론제	4장 : 시대별 분석
제2장 : Data 분석에 관한 개념제	5장 : 해양정서에 대한 종합분석
제3장 : 가요 상황분석제	6장 : 결론

### 제1장 : 서 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지형으로만 보자면 해양국이라 해도 좋을 만하다. 실제로 우리 역사의 상당부분은 바다와 관련된 사건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장차 21세기 신해양시대가 목전에 닥쳐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지난날 줄곧 바다에 밀착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늘날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바다가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는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대중가요라는 매개를 통해 대중들의 바다에 대한 정서와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시도이다. 대중문화 가운데 가요를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선택한 것은 가요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영향을 미치는 폭이 넓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부터 도출해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해양정서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장차의 해양정서 함양 방법을 찾아, 우리사회가 해양시대로 나아가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 1-2 연구 내용

대중가요란 말 그대로 대중의 노래다. 그러므로 어느 한정된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다. 대중문화의 흐름을 대중가요에만 국한하여 살피는 것은 지나치게 시야를 좁힐 수 있다. 하지만 그 파급속도나 침투력, 광범위한 파급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역시 대중문화 중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대중가요라 해도 틀림이 없다. 많은 대중들은 가요를 통해 무료함을 달래고 감정을 토로하거나 위안을 얻어 희망을 품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중가요에는 대중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바다'와 같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도출해내는 작업에도 대중가요가 적합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많은 곡들 중 대중들에게 널리 인기가 있었던 것들을 골라, 당대의 사회상황과 연관된 대중가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시대상황과 맞물린 해양정서의 변천양상을 파악하려 한다.

시대는 일반적으로 가요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중가요가 도입되기 시작된 것으로 보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 현재까지를 10년 단위, 총 8기로 나누어 보았다.

## 1-3 연구 방법

그러므로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1)자료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대중가요’이며, (2)자료의 크기는 22만여 곡의 대중가요 중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곡 수는 3,800여곡이며, 다시 그 중에서 ‘해양관련 대중가요’는 총 330곡이었다. (3)자료를 선택한 방법은 시중에서 출판된 대중가요집을 중심으로 해양에 관련된 곡명, 소재, 주제를 포함하는 가요를 선택하였다.

‘해양관련 대중가요’의 소재나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학생 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의 주관적 견해를 고려하여 주제는 8개로 제한했고, 소재는 조사자 개인의 임의에 맡겼다. 그 과정에서 강, 호수 등 바다와 유사하지만 관련이 없는 이미지의 소재들은 제외시켰다.

## 1-4 연구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료 수집	Data Base 설 계	자료입력	검 색	결론 도출

## 제2장 : Data 분석에 관한 개념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은 전산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분석 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누구나 인정하듯 요즘 시대에 최상의 가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를 정보로 시작해서 정보로 마무리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울고 웃는 것도 실은 정보 때문이다. 정보는 '인간활동'의 기준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 정보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DATABASE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ACCESS의 기능 DATABASE에 대하여 '자료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DATABASE(데이터 베이스, D.B.)'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먼저 커다란 의미로는 '필요로 하는 자료의 체계적 집합 또는 통합된 파일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통합은 하나의 파일로 병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중복저장 제거와 파일 또는 테이블간의 유기적 연결관계 형성을 뜻한다. 그리고 작은 의미로 보면, 이러한 작업을 가능케 하는 Software나 System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D·B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 경우에도 작업의 방식이나 내용은 전자의 의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자료(DATA)'란 어떠한 인위적인 변화도 가해지지 않은 객관적인 개별사실이나 현상이다. 이는 원시적일 뿐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미만 있어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무가치한 자료가 공간적, 시간적 취합과 조건에 의한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막대한 가치를 지닌 전혀 다른 '정보'로 탈바꿈한다. 그러므로 '정보'는 조치유발 또는 의사결정 목적으로 체계화된 가공된 자료를 의미한다. 자료는 정보의 생산에 있어 원자재 역할을 하며 여기에 가공 기능과 과정이 결합되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 과정이 자료의 '정규화'라고 하고 이에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DATABASE이다. D.B.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즉 유사한 자료들을 각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나 응용작업의 수월함을 위해 관리 프로그램이나 System의 지배하에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다 해도 그 내부 체계가 엉망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인 이용은 자료기지구축시의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정규화로써 가능하다.

자료의 정보화에서의 초점인 자료 저장과 그로부터의 추출을 위해서는 자료를 관리하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틀, 즉 D.B.의 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구조화를 위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정규화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다.

D.B.설계의 출발점은 설계되는 D.B.의 쓰임, 또는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최종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파악이 있고 나면 필요한 자료의 실체와 자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이다. 자료의 본원적인 속성을 파악하여야만 이를 구조에 맞게 취합, 재배치, 추출이 가능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 아래 이번 논문에 사용된 ACCESS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목표: 가사분석을 통한 가요 속의 해양정서 분석
- 2) 요구사항: ① 시대에 따른 가요분석 가능
  - ② 동일한 가요의 누락
  - ③ 작사가, 가수 성별에 따른 분석 가능
  - ④ 주제별 분석 가능
  - ⑤ 소재별 사용빈도수 파악 및 분석 가능

- 3) 자료실체: '곡명', '발표년도', '작사가', '작곡가', '가수이름', '가수성별', '주제', '소재'
- 4) 자료관계: 모든 자료실체는 '곡명' 항목에 종속된다.  
 '곡명', '작사가', '작곡가'는 동일한 가요의 선별에 기준이 된다.  
 '가수성별' 항목은 '가수이름' 항목에 종속된다.  
 '소재' 항목은 '곡명'을 제외한 모든 실체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분석 과정에서는 분리된다.

## 5) 자료구조

Data Base 가요분석

TABLE 1.일반분석

2.소재분석

FIELD 1-1. 일련번호

1-2. 곡명

1-3. 발표년도

1-4. 작사가

1-5. 작곡가

1-6. 가수이름

1-7. 가수성별

1-8. 주제

2-1. 일련번호

2-2. 곡명

2-3. 소재1

2-4. 소재1의 사용빈도

2-5. 소재2

2-6. 소재2의 사용빈도

2-7. . . . .

2-23. 소재10

2-24. 소재 10의 사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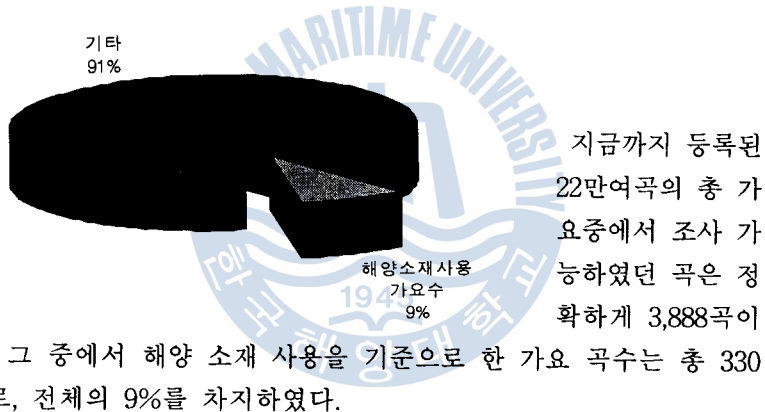
RECORD(인덱스 설정) 곡명

## 제3장 : 가요 상황분석

이 장에서는 ‘해양관련 대중가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3-1 조사 가요 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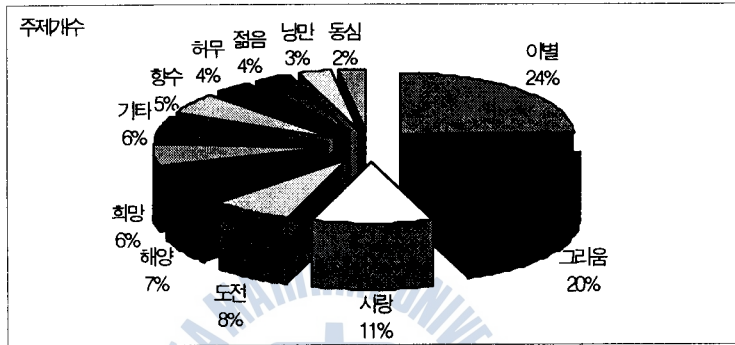
조사가요 총 분석



## 3-2 주제별 분석

주제별로는 이별, 그리움, 사랑이 전체의 55%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 해양소재 사용에 있어 이성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주제 사용에 있어 이별, 그리움, 허무 등의 비교적 어두운 주제에 전체의 48%가 이용된 것에 비해 사랑, 도전, 희망, 젊음 등의 비교적 밝은 주제에 사용된 해양소재는 29%를 보여 대조를 보여준다.

주제를 분류한 8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별 : 남녀간의 이별은 물론 모든 헤어짐(사람과 사람간)을 노래할 경우

그리움 : 이별 후 상대를 그리는 마음을 노래할 경우

사 랑 : 이성이나 일정한 관계의 대상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그릴 경우

도 전 :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맞설 경우

해 양 :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바다에 관한 대상을 지칭하여 노래할 경우

희 망 :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할 때의 감정을 노래할 경우

향 수 :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할 경우

허 무 : 마음이 텅빈 상태를 노래할 경우

젊 음 : 청춘을 노래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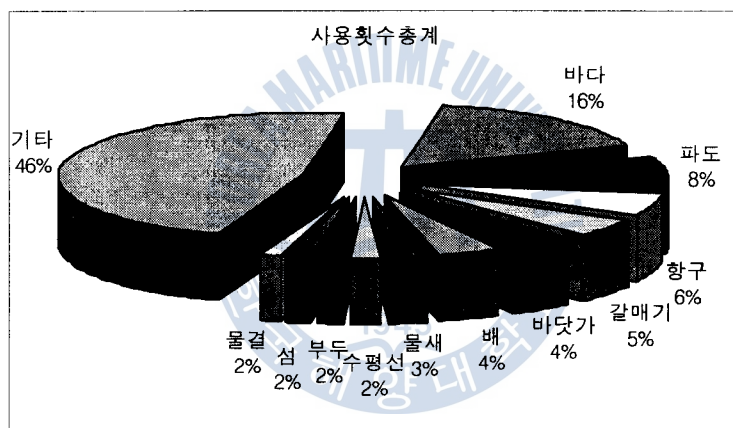
낭 만 : 정서적인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을 그린 노래

동 심 : 해양관련 동요를 노래할 경우



### 3-3 소재별인지도 분석

소재의 범위는 해양관련 소재라고 판단되는 용어 및 단어를 선택했다. 가사 중에 나오는 해양관련 용어는 전문분야의 용어와 표현이 다르더라도 해당 가요에서 표현된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지방명(노랑, 나포리, 현해탄, 부산, 송도…), 뗏기(deck), 마스트(mast), 앵카(anchor), 항로, 바이킹 등이 그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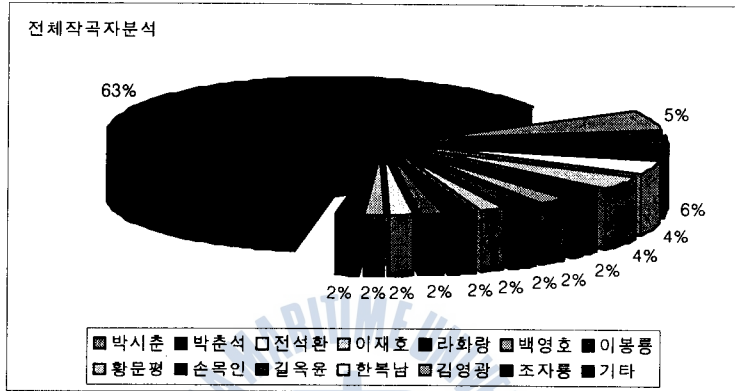


사용된 해양소재의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바다가 전체의 16%를 차지해 해양소재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파도(8%), 항구(6%), 갈매기(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3-4 작곡자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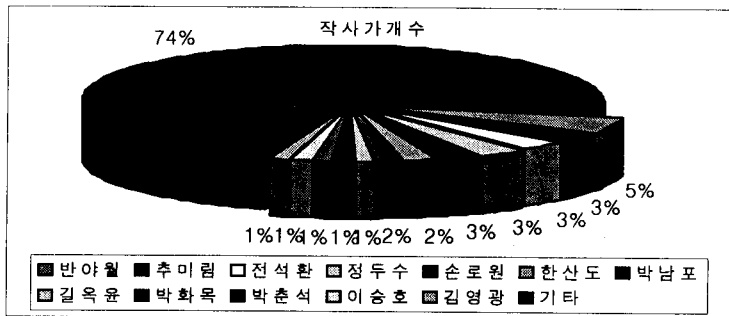
해양소재를 사용한 곡의 작곡자들 중 63%는 한결같이 낮은 빈도수를 보여 기타로 분류했다. 그러나 박시춘, 박춘석, 전석환, 이재호 등 두드러진 인물들이 있어 전체의 20%에 가까운 빈도(19%)를 보

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 3-5 작사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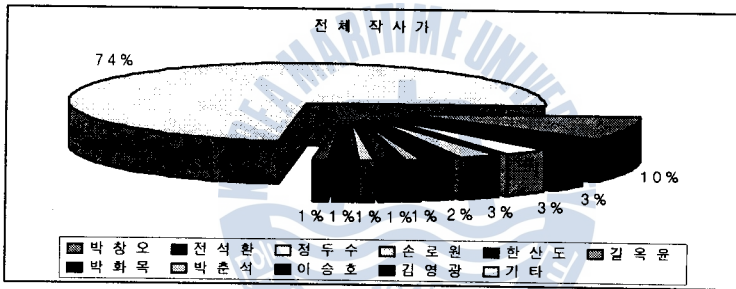
작사가들 역시 전체의 74%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반야월(16곡)을 비롯한 추미림(11곡), 전석환(10곡), 정두수(10곡) 등이 비교적 많은 가사를 쓴 작사가들이다.



반야월, 박남포, 추미림, 남궁려 등은 이름은 다르지만 알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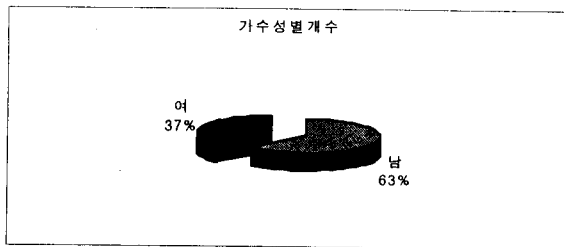
동일인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동인임에도 불구하고 각 이름으로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본명 박창오가 작사가, 작곡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나름의 개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며, 또한 10여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그 시대상황과 그 이름이 상관성을 나누어가졌을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박창오의 다른 이름을 합쳤을 경우, 해양관련 곡의 비중은 다음과 같은데, 박창오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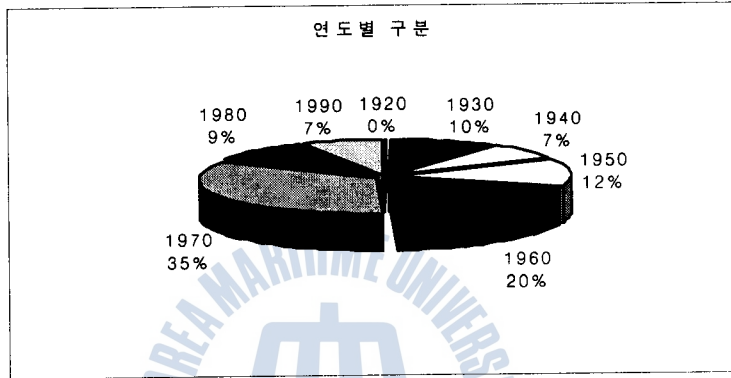
### 3-6 가수성별 분석

해양소재 가요를 부른 가수는 남성이 63%로서 37%를 차지한 여성보다 높아, 해양소재 가요에는 남성의 어조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4장 : 시대별 분석

## 4-1 시대별 총분석



조사대상인 곡 전체를 연대별 분포로 분석해 보인 것이다. 우선 분석대상인 곡들을 192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분류한 분석 결과, 60년대와 70년대가 전체의 55%로 비교적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그 외에는 20년대를 제외하고는 10%내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4-2 1920년대

이 시대에 기존 한국인의 해운업체는 말살되었으며 해양으로의 진출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다. 조선을 통치하는 통감부와 총독부 시대의 한국 해운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철저히 추종, 부흥하는 것으로,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따라 그 궤(軌)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한국경제의 일본경제에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는 터라 해운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이는 결코 쉽지 않았다. 더구나 1920년대의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인하여 해운업계가 심한 불황에 빠져드는 바람에 계선이 많아졌다.

흔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중가요가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를 1919년 3.1운동을 전후한 때로 본다. 이 무렵 축음기가 한국에 들어와 퍼지게되자 레코드를 매개로 대중가요의 작사와 작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노래를 부를 가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25년 11월에는 한국 최초로 레코드에 담긴 대중가요가 선을 보였으며 1929년 4월에는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음반을 내놓았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 장르로서는 대중가요보다 영화에 대중들의 인기가 더 쏠렸음은 알 수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1920년대의 해양관련 영화 자료를 찾지는 못했다.

#### 4-3 1930년대

##### 4-3-1 시대상황

1930년대에 들어와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침략에 나서게 되자 조선총독부의 지휘를 받는 해운도 그 일익을 담당하여 대지항로의 개척, 확충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해운은 물론, 대리점업 등과 같은 관련분야로의 진출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하지만 대중가요로 보면 이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유행가가 실린 레코드판을 내놓는 음반회사도 여럿 출현하여 레코드 판매에 경쟁을 하게되었다. 그들은 저마다 새로 나온 신인가수나 인기 있는 가수의 선전에 열을 올렸고, 좋은 곡이 나오면 히트를 예상하고 갖가지 문구를 담은 선전물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더구나 1939년경부터는 악극단들이 생겨나서 각 음반회사와 관련된 악극단의 공연에 가수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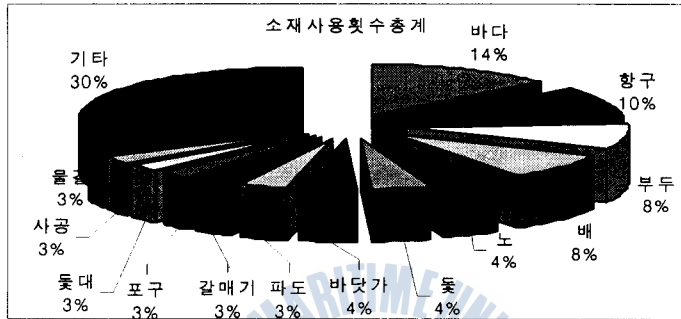
이 무렵 나온 대중가요 중에는 연해주 이주자들의 심정을 반영한 노래, 이별에 대한 반작용으로 애항심을 고취시킨 노래, 북간도로의 이주와 부산항에서의 이별을 담은 노래, ‘두만강’이나 ‘북쪽’, ‘북극’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북쪽으로의 이별을 담아낸 노래, ‘연락선’, ‘부산항’, ‘현해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남쪽으로의 이별을 담아낸 노래, 기생을 유혹하거나 기생이 유혹하는 연가류의 노래, 주로 비련을 노래하며 상류층의 허무의식을 드러낸 노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저항적 내용의 본심을 은폐한 노래, 복잡한 정서적 상황을 담은 노래, 소박한 유머를 담은 노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일색의 노래 등이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다양한 대중가요 시대를 맞았던 것이다.

#### 4-3-2 가수성별 분석



이 시대에 불리워진 대중가요에는 남성의 어조가 60%로, 여성보다는 많이 담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4-3-3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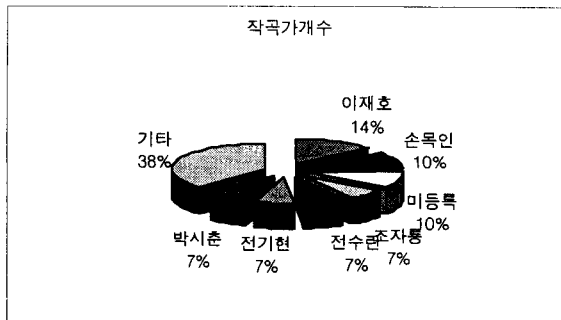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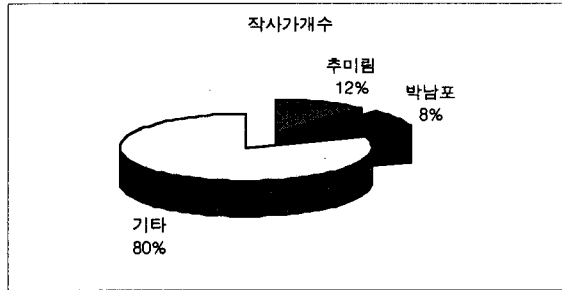
바다가 14%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항구(10%), 부두(8%), 배(8%) 순으로 조사되어, 현실적인 해양 소재(운송수단 등)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4-3-4 작곡가별 분석

이재호를 비롯하여 유명한 작곡가들이 52%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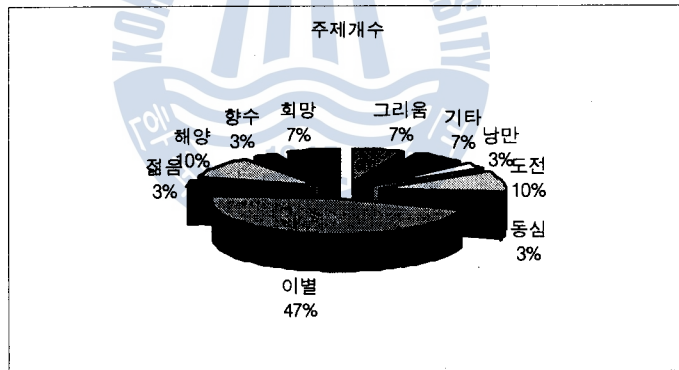
4-3-5 작사가별 분석





추미림을 비롯한 작사가들이 20%의 비율을 보였다.

#### 4-3-6 주제별 분석



이별의 정서를 노래한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전과 해양이 각각 10%로 조사되었다.

#### 4-3-7 1930년대 총분석

주제에서 이별의 비율(47%)이 전체 평균인 24%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인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소재의 사용에서도 파도, 갈매기, 바닷가 등 관념적 소재보다는 항구, 부두, 배 등의 현실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재들이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4-4 1940년대

##### 4-4-1 시대상황

이 시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 들기 직전인지라 그들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정책도 날이 갈수록 강압적 분위기를 띄어갔다.

이즈음의 가요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른바 ‘암흑기’를 맞이했으며, 그래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의 가요가 많이 발표되었다. 이 무렵에는 작사가나 작곡가들의 이렇다 할 활동이 보이지 않았으며 가수들 또한 그러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정구가 부른 「낙화삼천」이 두드러져 보이는 가요였고, 백년설이 부른 몇 곡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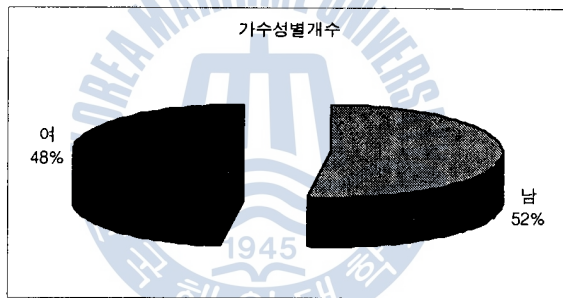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찾아온 해방으로 한국해운은 자본주의적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로부터 비로소 한국해운은 선진자본주의의 충격을 받은 시기와 자체적 형성기를 거쳐 자본주의적 성장기로 나아가게 된다. 이때 해기사를 주축으로 하는 해운관련 인사에게 내적, 심리적 기동력으로 작용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 그 하나는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접수, 관리였으며 다른 하나는 해운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창립이었다.

해방 직후로부터 그 후 15년 동안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많이 알려진 해양관련 노래로는 「귀국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처녀 뱃사공」, 「해운대 엘리지」 등이 있다. 해방 직후에 나온 노래의 가사내용들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절한 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부산항 부두 및 연락선의 분위기를 반영한 노래, 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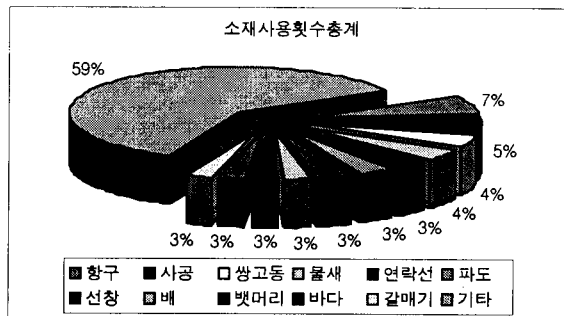
헤진 부산항과 관련된 노래, 38선과 귀국, 귀향에 관한 노래, 귀향의 감정이 변형된 노래 등 갖가지 정서를 담고 있다. 이는 해방이후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갖게된 감정이거나 남북분단을 비롯한 이유 등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타향에서 생활하는 심정을 반영한 노래들이다.

#### 4-4-2 가수성별 분석

남성의 어조가 52%로 여전히 여성의 어조(48%)보다는 높지만 여성의 경우 바로 앞시대의 40%에 비해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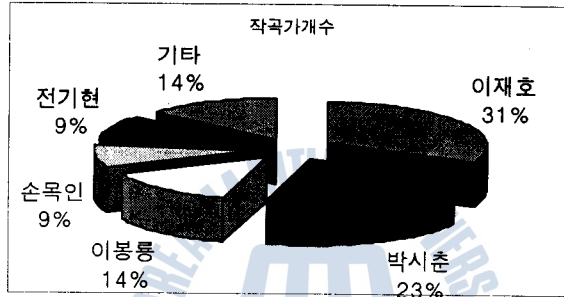


#### 4-4-3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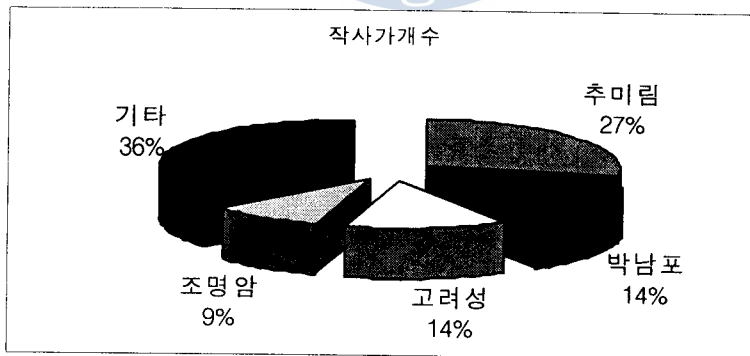
사용횟수가 2회 이하인 기타의 비율이 59%로 비교적 높았고, 항구(7%), 사공(5%), 쌍고동(4%), 물새(4%) 등이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조사되었다.

#### 4-4-4 작곡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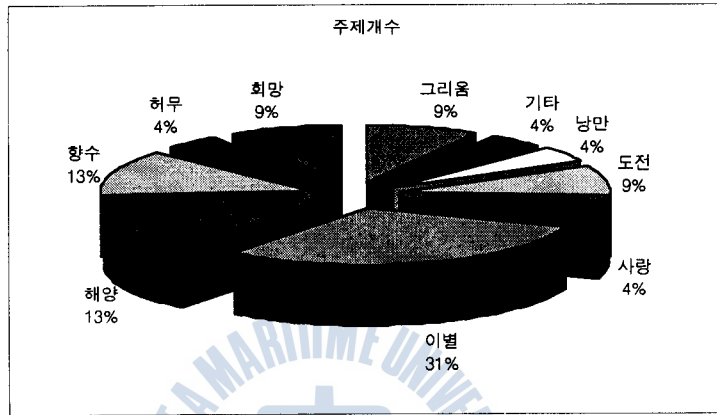
이재호와 박시춘 등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 작곡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였다.

#### 4-4-5 작사가별 분석



추미림을 비롯한 유명 작사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전체적인 분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4-4-6 주제별 분석



혼란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주제인 이별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해양, 향수 등의 주제도 각각 19%를 차지했다.

## 4-4-7 1940년대 총분석

앞 시대에 비해 가수 성별 면에서 여성의 어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재면에서는 다양한 이미지가 뒤섞인 기타의 비율이 51%로 증가하여 소재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재 중에서도 향구, 사공, 쌍고동, 연락선, 선창 등 선박 관련 소재들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주제면에서도 앞 시대의 47%에 비해 이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 향수(13%),그리움(9%)이 증가하였고 희망(9%),도전(9%)도 각각 증가하여 해방과 관련한 당시의 시대상황을 가늠케 한다.

주제사용에서는 해양의 비율(1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당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 4-5 1950년대

### 4-5-1 시대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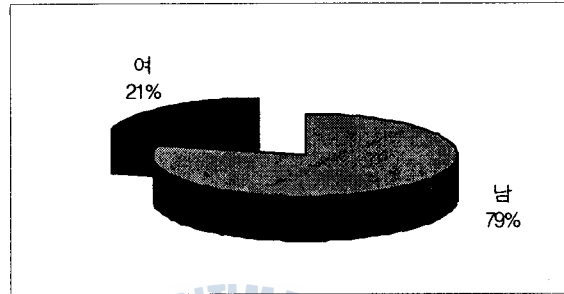
미국 원조의 증대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5.5%로 높아졌던 이 시대가 해운 업계로 보아서는 자본주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1950년 1월 1일의 대한해운공사의 설립 및 경영을 필두로 국가자본에 의한 독점적 해운기업의 설립과 해기사를 주축으로 해운관련사에 의한 회사의 운영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는 모처럼 조성된 부흥의 기운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피난민과 이재민이 발생하는 비극이 밀어닥쳤다.

1950년부터 휴전이 된 1953년까지 나온 대중가요들은 전쟁과 피난, 휴전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 온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대중가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듬어지고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 시기에는 6.25와 환도, 귀환과 관련된 노래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6.25가 얼마나 큰 사변이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피난시절, 또는 그 이후의 많은 정치적 사건은 대중을 실망시켰는데,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도피적인 내용의 노래가 나타났다. 미군과 국제 연합군의 참여로 인해 이국풍의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새로운 관습의 도입과 이에 대한 풍자, 신문화 제도와 문물에 관련된 노래도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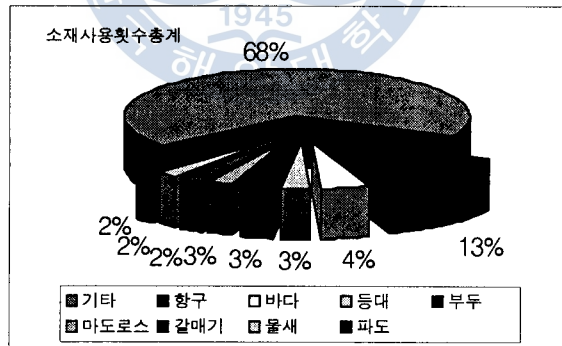
1956년 가요 레코드 작가들이 한데 뭉쳐 오직 건전한 대중가요를 창작, 발표하자는 의도에서 대한레코드제작협회를 탄생시켰다. 1957년경부터는 레코드 제작에서 재래식 방법을 벗어난 새로운 변화가 도입됐으며 1959년에 가요노래위원회가 생겨 가요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되었다.

## 4-5-2 가수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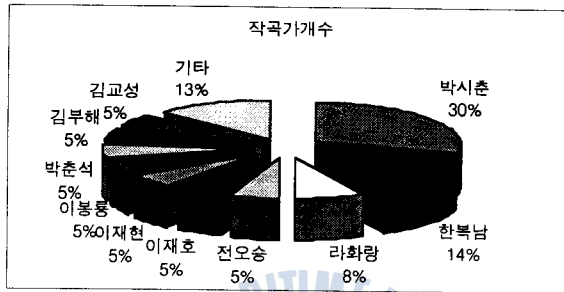
남성의 음성이 담긴 노래의 비율이 79%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5-3 소재별 분석



기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소재가 다양해진 현상을 보여줬고, 항구(13%) 바다(4%) 등대(3%) 부두(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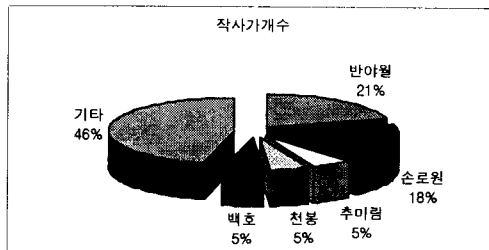
4-5-4 작곡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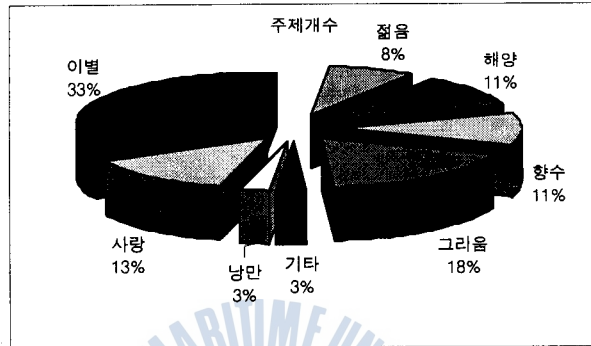
전체의 30%를 차지한 박시춘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고 한복남, 라화랑의 비율도 높았다.

4-5-5 작사가별 분석

반야월, 손로원 등 두드러진 인물이 등장하여 대중문화계에 해양 관련 가요를 선보였다.



## 4-5-6 주제별 분석



이별(33%), 그리움(18%), 사랑(13%), 향수(11%), 해양(11%)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희망, 도전과 관련된 주제는 조사되지 않았다.

## 4-5-7 1950년대 총분석

피난생활로 인한 갖가지 타향체험은 주제면에서도 향수를 11%로 높여 포괄적으로 보면 향수와 관련된 소재나 주제가 앞시대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소재면에서 기타가 68%를 차지하여 해양 관련 소재가 더욱 다양화되었으며, 남성가수들의 활동 증가로 어조에서 남성의 어조가 급격히 증가(79%)했다.

## 4-6 1960년대

## 4-6-1 시대상황

이 시대에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1%로 하락하고 수출이 수입의 5% 내외에 불과하여 경제의 정체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차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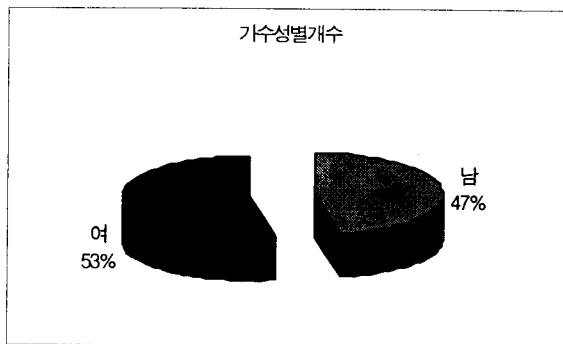
사회는 자리를 잡아갔으며 기업의 숨통도 트였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기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으로, 국내 최초로 조선업과의 연계조성에 의하여 외항선을 건조하였는데, 이는 한국해운에 큰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4년 6월에 사단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겨 대중가요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꾸준히 애썼다. 그리고 음반제작 기술이 크게 혁신되었으며 녹음 기술도 향상되고, LP가 등장했다. 레코드회사가 성황을 이뤄 녹음기계도 외국에서 새로 들어오고 녹음실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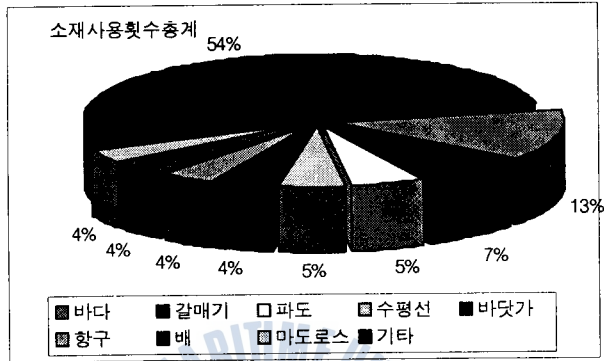
이때 재생 레코드가 붐을 이뤄 옛날 히트했던 가요를 재생해냈다. 그 결과 5. 16이후부터 18년 간 만들어진 노래로는 「황포 돛대」, 「섬마을 선생님」, 「물새 한 마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이 있다.

#### 4-6-2 가수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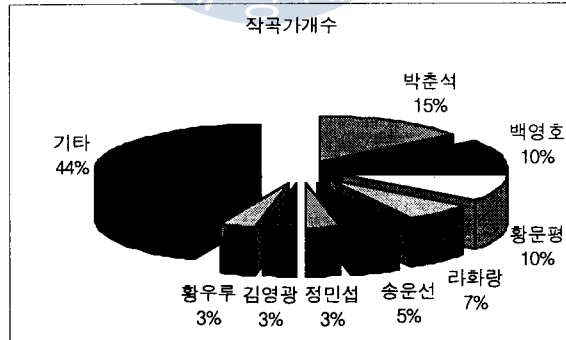
앞시대에 비해 여성의 어조가 급격히 증가하여 53%를 차지하였다.

## 4-6-3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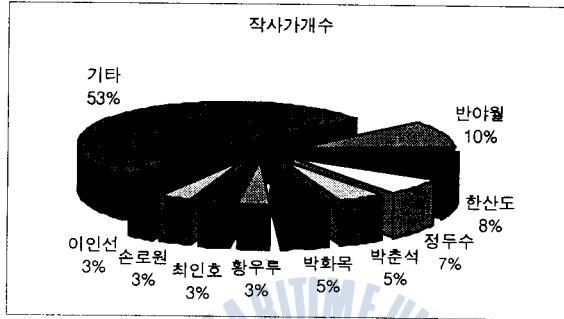
소재에서 기타가 전체의 54%를 차지해 여전히 다양한 해양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나 순위에 있어 앞서대와 다르게 바다(13%) 갈매기(7%) 파도(5%) 수평선(5%) 바닷가(4%) 등의 관념적 성격을 지닌 소재들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 4-6-4 작곡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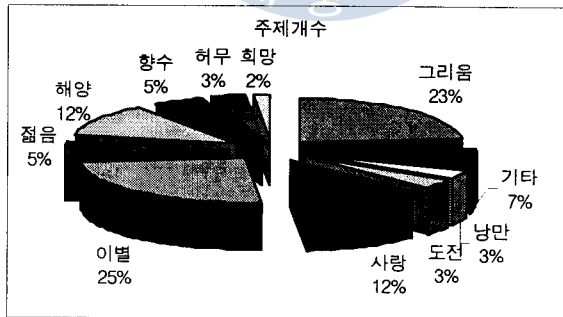
비율이 전체의 10%대를 넘어서는 박춘석, 백영호, 황문평을 위시한 유명 작곡가들이 활동을 선보였다.

4-6-5 작사가별 분석



반야월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명작사가들이 등장하여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4-6-6 주제별 분석



이별(25%) 그리움(23%) 사랑(12%) 등의 주요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해양(12%)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6-7 1960년대 총분석

가요계의 세대가 대폭적으로 교체되는 가운데 여성가수의 대대적인 진출로 여성의 어조가 크게 증가했다. 소재면에서도 현실적 소재들은 퇴조하고 다소 관념적인 소재들(갈매기, 파도, 수평선, 바닷가)등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주제는 여전히 해양이 12%로 높은 비율을 드러내보였다.

## 4-7 1970년대

## 4-7-1 시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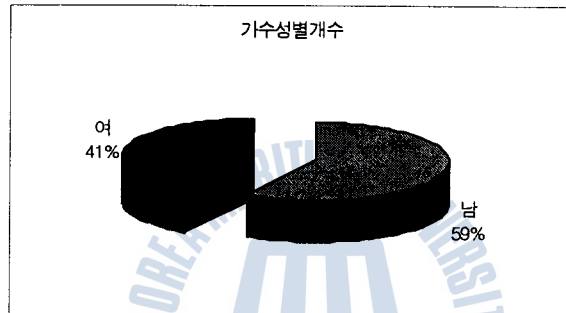
이 시대에 설립된 해운기업들은 아직 방계회사를 설립할 정도의 자본축적은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해운업 이외의 분야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1974년까지의 호황기에 자본은 급증하여 이후 한국해운은 무역량의 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당국에 의한 작곡금지, 유포금지 등의 조치가 잇달아 유명노래를 패러디하는 풍조가 성행했다. 1970년 7월에는 대중가요를 위해 공헌한 작사가와 작곡자들이 마음을 모아 '한국가요반세기작가동지회'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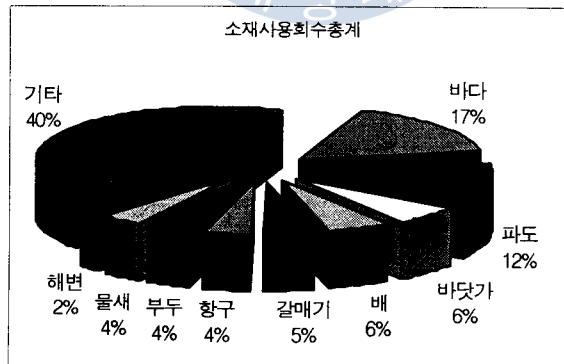
1975년 12월 19일 '한국연예협회'가 연예계사상 처음으로 무더기 제명처분을 내려 일반대중들에게도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를 하여 '대마초 사건'으로, 한동안 관계당국으로부터 음성적인 조사가 진행된 끝에 그 명단을 통보 받은 '한국연예협회'가 이들을 제명 처분했던 것이다.

#### 4-7-2 가수성별 분석

이 시대에 이르러 남성의 어조가 59%로 다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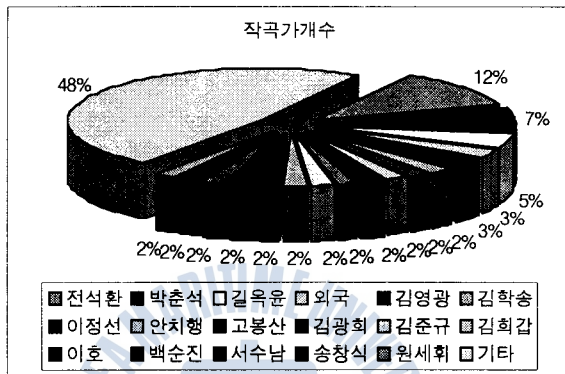


#### 4-7-3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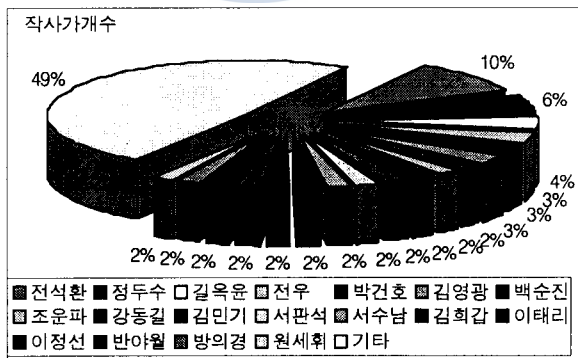
소재면에서는 바다(17%) 파도(12%) 바닷가(6%) 배(6%) 갈매기(5%)로 여전히 관념적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 4-7-4 작곡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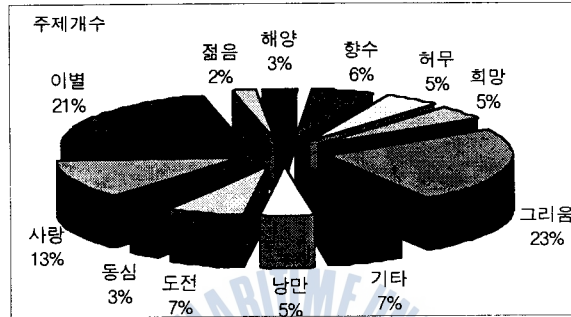
이 시대에는 두드러진 인물 1,2인을 위시하여 비교적 두터운 작곡가층이 형성되었다.

## 4-7-5 작사가별 분석



작사가들 역시 많은 유명인들의 등장으로 층이 두터워졌다.

## 4-7-6 주제별 분석



주제면에서 그리움(23%) 이별(21%) 사랑(13%)이 여전히 주요 주제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7-7 1970년대 총분석

전반적인 해양산업의 부흥과 함께 해양소재 가요 추출 건수도 많아졌다. 경제성장과 때를 같이하여 주제나 소재의 쓰임이 다양화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 4-8 1980년대

## 4-8-1 시대상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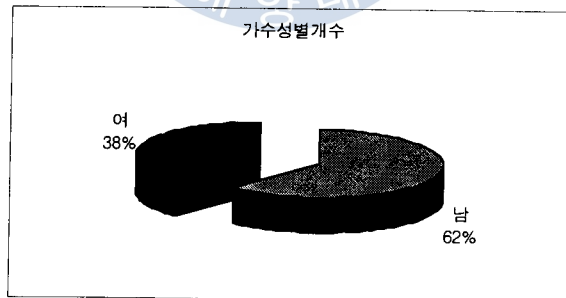
청소년계층의 폭넓은 호응에 힘입어 발라드가 크게 발흥한 198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의 격동기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소기의 결실을 보았고,

경제적으로는 건국 이래로 최초의 무역 흑자를 이룩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서울 올림픽의 유치로 성숙된 국민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바람에서 비롯된 일련의 정치적 격동과 그에 따른 변화가 1980년대를 풍미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인 유신체제가 몰락한 후 국민들은 민주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12.12사태 이후의 암울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정치군벌의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

한국해운은 80년대 초를 지나면서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어 많은 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단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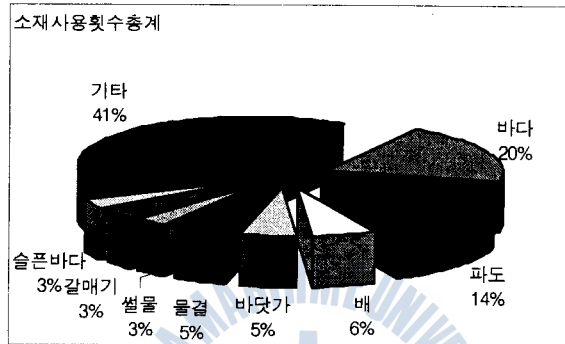
#### 4-8-2 가수성별 분석



남성의 어조가 62%로 여성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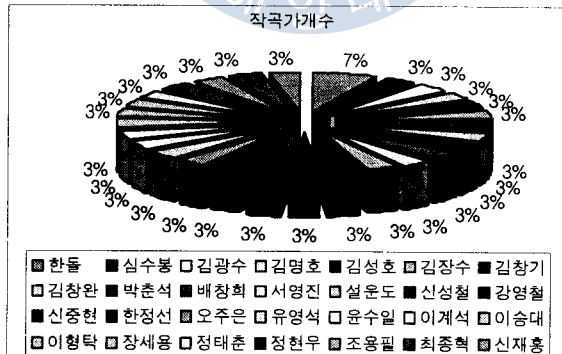


4-8-3 소재별 분석



소재에서 바다(20%) 파도(14%) 배(6%) 바닷가(5%) 물결(5%)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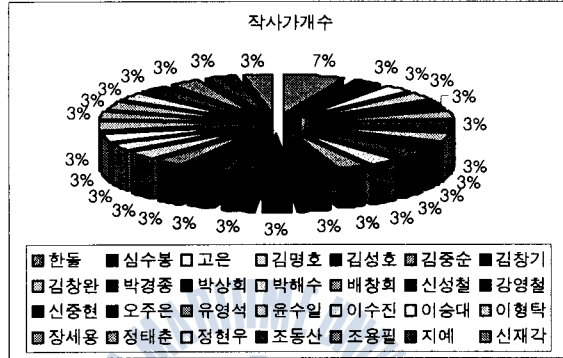
4-8-3작곡가별 분석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는 작곡가군의 출현으로 대체로 3%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작곡가들이 전체비율을 나누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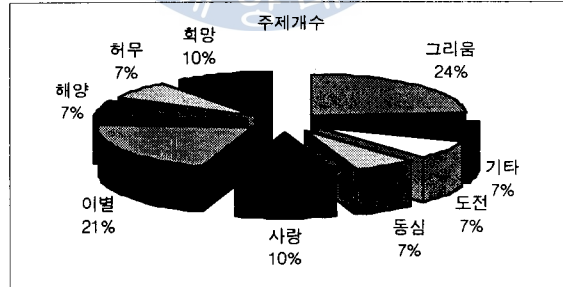
276231

## 4-8-4 작사가별 분석



작사가들 역시 다양했으나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일정비율을 차지한 수가 적었다.

## 4-8-5 주제별 분석



주제에서는 그리움(24%) 이별(21%) 사랑(10%) 순서로 그리움의 정서가 이별보다 비중이 있었으며 희망(10%) 이외의 모든 주제들이 7%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 4-8-7 1980년대 총분석

소재에서는 여전히 관념적인 소재들에 비중이 높았으며 주제에 있어 그리움의 정서가 이별의 정서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인 것 그리고 희망의 정서가 10%로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 원인은 1980년대의 큰 사건인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출 곡수는 1970년대의 104곡에서 28곡으로 크게 감소하여 대조를 보인다.

#### 4-9 1990년대(랩/댄스뮤직의 발흥)

##### 4-9-1 시대 상황 분석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심화된 반면, 무역에 따른 적자 및 국제 경쟁력 약화, 쌀로 상징되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식용수질 악화 등이 국민적인 이슈로 등장한 시기였다. 가요 분야에서는 발라드가 주류를 형성한 가운데 트롯이 왜소한 모습으로 자리하였으며 신민요는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랩/댄스뮤직이 새롭게 발흥한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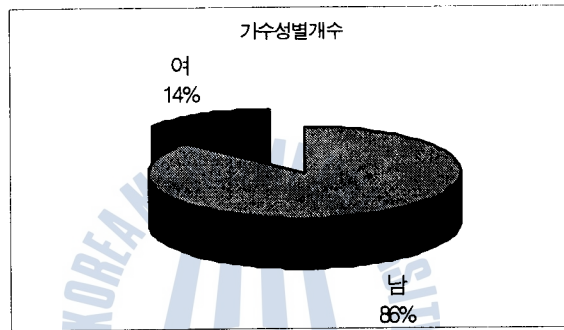
1993년 초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으로, 국제적으로는 주요수출입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첨예한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1993년 12월 중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일본에 이어 쌀을 비롯한 육류, 곡류 등 기초 농산물의 개방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환경에서 쌀을 비롯한 기초 농산물의 개방으로 고향의 상징인 농촌이 붕괴의 위기를 예상하게 된 시점이 1993년 12월이었다.

이 시기의 대중가요는 위성방송/컴퓨터/팩스/전화/비디오 등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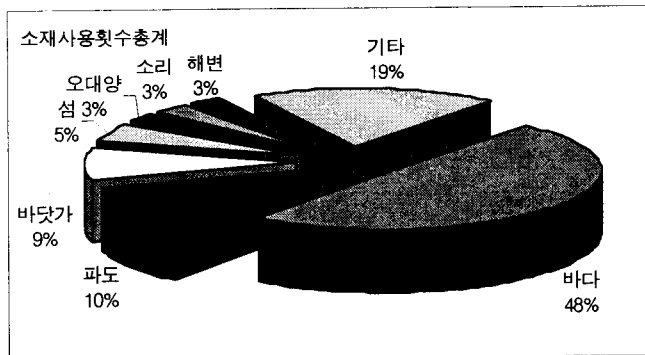
적 미디어의 영향을 입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대두를 앞두고 외국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유입된 유행 문화가 청소년계층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드러내 그들의 복장 등을 바꾸어놓았다.

#### 4-9-2 가수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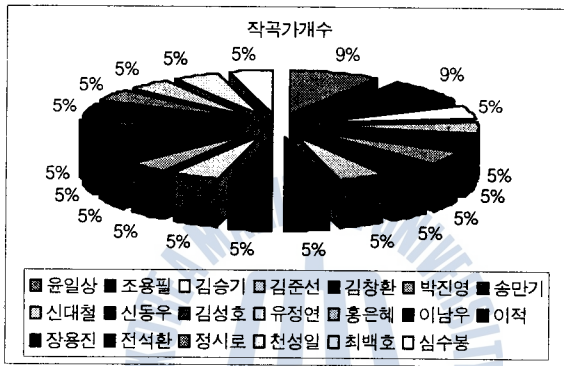
남성의 어조가 86%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4-9-3 소재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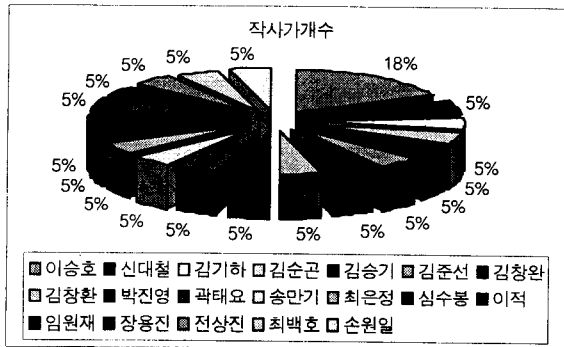
소재에서는 바다가 48%로 기타 항목보다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었고 파도(10%), 바닷가(10%)의 비율로 나타났다.

4-9-4 작곡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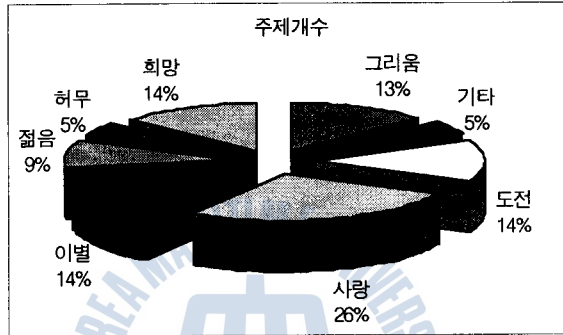
윤일상과 조용필을 제외하면 5%대의 안정된 비율을 차지하는 다양한 작곡가군이 등장했다.

4-9-5 작사가별 분석



작사가들 역시 안정된 분할비율을 보여주었다.

## 4-9-6 주제별 분석



주제에서는 사랑의 정서가 26%를 차지해 감각적 정서의 증가를 보였으며 도전, 희망 등 긍정적인 주제들이 각각 1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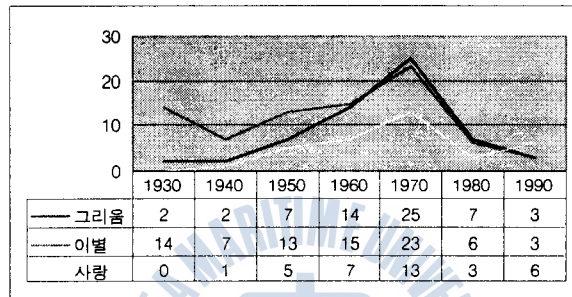
## 4-9-7 1990년대 총분석

경제발전과 사회의 안정, 댄스 등 다양한 대중문화의 유행과 더불어 점차 밝은 분위기의 곡들이 증가하면서 해양소재 사용 가요에서도 사랑 등의 감각적인 주제의 곡들이 증가하고 '도전', '희망', '젊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해양관련 가요의 전체 추출 곡수는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제5장 : 해양정서에 대한 종합분석

## 5-1 주제에 관한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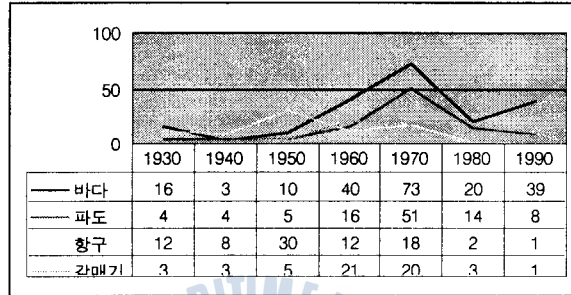
주제 가운데서도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의 시가의 주요 정서로 꼽히는 그리움, 이별, 사랑을 놓고 시대별 흐름을 살펴 보자.

민요 '아리랑'의 주제로 대표되는 한국적 정서는 님에 대한 이별과 그리움이다. 조사 내지 분석 결과 이 주제는 여전히 해양관련 소재의 가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간격을 좁혀가면서 종당에는 사랑이 이별과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앞질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그래프에 나타난 시대별 흐름에서는 194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까지의 이별과 그리움의 증가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 우리 해양관련 산업의 비중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해어짐의 상황과 양상이 벌어졌다. 이는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나 일상에서의 특수한 속성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해양관련 소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대표적인 정서인 이별이나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졌고, 그 결과 실제적으로 가요에도 그러한 정서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5-2 소재사용에 관한 종합분석



위 그래프에서 보면, '바다'와 '파도'의 항목, '항구' 항목은 비중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처럼 '바다'와 '파도'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항구'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처럼 '항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바다'와 '파도' 항목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두 경우에서 보듯 '항구' 소재는 '바다'와 '파도'의 소재와 상대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소재에서 '항구'의 비중의 급격하게 감소함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음에 비추어 해양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급격히 감소했다. '항구'의 비중 변화는 이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5-3 해양정서 종합 분석

위와 같이 우리가요에서 해양정서는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주제와 소재의 쓰임에서는 시대적 해양관련 산업의 흥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해양관련 산업이 발달하던 초기에 사회·경제면에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때는 ‘이별’이나 ‘그리움’의 주제, ‘해양’의 주제 속에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소재의 사용에서도 ‘항구’, ‘부두’ 등의 소재, ‘바다’, ‘파도’ 등 소재의 사용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읽을 수가 있다. 이는 1930년대의 이주·해외 이민의 실상을 그린 가요와 1940, 1950년대의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을 담은 가요 속에도 잘 드러나 있다.

또한 1960, 1970년대의 해양산업의 분위기는 그 시대에 등장한 해양관련 가요의 양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해양소재 가요의 주제나 소재면에서 보이는 다대한 변화는 경제적 발전에 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6장 :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우리가요에 담겨있는 해양정서는 이중적이다. 즉, ‘바다’, ‘파도’로 대변되는 관념적이고 유희적인 정서와 ‘부두’, ‘항구’ 등으로 대변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 정서가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또한 그 속에서 각종 식량자원을 얻고 바다를 통해 경제적 부를 획득한다. 다같이 바다와 관련된 활동이지만 그 성격은 지극히 극단적이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다. 경제적 만족과 여유는 바다를 관념적이고 유희적인 정서로 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적이고 유희적인 정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서가 바탕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중가요 속에서는 해양정서가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변화함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정서의 상호관계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 관련 소재를 사용한 가요를 듣고 따라 애창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양정서를 주입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정서를 표출하고, 그로부터 영향받는 대중가요를 통해 해양에 관련된 진취적 주제와 소재를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해양정서 고취와 해양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lt;참고문헌&gt;

- [1] 시론 한국해운사-아성출판사~ 손세현(저),1996
- [2] 한국의 대중문화-나남출판사~ 강현두(저),1987
- [3] 한국 현대사-도서출판 풀빛~ 한국역사 연구회  
(현대사연구반),1991
- [4] 대중화시대의 음악-음악도서,삼호출판사~ 이장직(저),1990
- [5] 한국가요사 이야기-아름출판사~김영준(저),1994
- [6] 대중가요-아름출판사,1997
- [7] 신세대 노래방-세광음악출판사,1997
- [8] 당신의 노래방-세광음악출판사,1996
- [9] 가사집 아름출판사
- [10] 가요반세기-아름출판사,1996
- [11] 바다노래100선-해군본부,1996
- [12] 한국가요사1.2.3.4.5-세광음악출판사~ 박노홍(저)
- [13] 인기가요 대백과-세광음악출판사,1996
- [14] 가요명곡특선집-삼호출판사
- [15] 최신 신바람 히트송오선
- [16] 즐거운 노래 대백과-아름출판사
- [17] 인기가요백과-현대음악출판사
- [18] 노래방 대백과-성음미디어
- [19] 알기 쉬운 한글Access95-정보문화사,1996
- [20]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현-법령사,1995

